

경제적과실 지역·계층간 골고루 배분되도록

2천년대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 인류는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와 혁신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되는 세기적 전환의 시점에서, 태풍전야의 예감을 느끼면서 하나의 공통된 바람으로 다가오는 세기의 지평을 바라보고 서있다.

이 바람은 한마디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푸른 지구촌을 지키고 이위에 세계 평화와 보다 나은 내일의 인류복지를 증진시키고 창조적인 인류문명을 세워 나가고자 하는 꿈인 것이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지구촌위에 보다 밝은 희망의 철학을 세우고 이를 위한 인간의 **善意志**와 지혜와 행동의 결단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21세기에 대비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있는 참다운 뜻도 미래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다가올 모든 불안요인들과 부정적인 변수들을 최소화하고 보다 밝은 내일의 진로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창조와 행동의 철학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미래는 극복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인류의 지혜와 공동의 노력으로 지금부터 창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시간속에서 미래는 잉태되고 형성되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한국의 21세기를 전망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적 과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채, 지난 세기 동안 인류문화를 지탱해온 이념과 체제와 제도가 모두 격심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음을 보고 있다.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와 함께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전체의 개방과 개혁이 급속도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양대국을 중심으로 지속되어온 양극체제 역시 탈냉전시



21세기위원회 위원장
李 寬

푸른 지구촌 지키며 인류복지 증진

대의 새로운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그 사회적 영향은 인간 생활의 양식과 가치관의 새로운 변혁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국제적인 상호 의존관계가 더욱 높아지고 지역별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구환경의 보존과 같은 공통적인 과제가 더욱 심각한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한국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분화를 겪으면서 사회복지와 균형발전에 대한 욕구와 기대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정치적인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일시적인 혼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시민사회의 문화적 질서가 점차 확립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냉전체제의 붕괴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해온 북방정책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민족통일의 새로운 전망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

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1세기의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과제가 무엇이며, 오늘의 한국이 어디에서 있는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오늘의 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내일의 상황을 예견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기준이 된다.

21세기를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는 인간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힘에 기초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건전한 시각과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위해서는 우선, 오늘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자연적인 추세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계속해야 하며,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의 기본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무엇이 앞서고 무엇이 뒤따라야 하는가를 계획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주어진 상황, 전반적인 추세속에서 정해진

산업화, 사회구조 분화 따른 갈등 미리미리 해소

목표에 따라 선택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그 실천 전략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에서는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체제를 정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같은 작업속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

21세기의 사회구조와 정치이념, 제도의 모색. 마지막으로 민족화합과 국제협력으로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관심은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추진과정이라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체적인 판단과 노력에 의해 이상적인 미

요로운 생산력과 지식, 정보의 과잉속에서도 지구호의 앞날에는 더욱 거센 풍파가 몰아쳐 올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몇가지 문제만 열거해 보아도 경제상의 남북문제에 따른 자원의 과다소요와 환경의 오염, 지구생태계의 급속한 파괴, 대기오염에 따른 지구기온의 상승과 해수면의 상승, 열대산림자원의 침식과 건조한 사막지대의 확대등 인류 생존자체가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현실로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세계 모든 나라의 문제이며 어느 나라라고 해서 한국격식과 같이 강 넘어 불구경할 수는 없는 바로 우리의 공통의 문제이다.

전후 반세기에 걸친 암울했던 냉전체제는 이제 종언을 고하고 준비축소 여망의 실현과 세계평화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이제 인류에게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주고 있다. 이 힘을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하고 세계전체를 위해 선용할 수 있다면, 우리 지구촌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인류는 더 큰 평화와 복지를 누릴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더 맑고 푸른 환경을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선진국과 후진국이 다 함께 어울리고, 인종과 종교, 정치이념을 초월하여 같이 손잡고 21세기를 열어가는 장엄한 인류의 행진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주체적 판단따른 이상적미래상 선택

제성장의 결실이 지역간, 계층간에 골고루 분배되어 모든 국민이 상호화합속에서 윤택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하는 국가적 과제. ② 급변하는 정치, 경제, 과학, 기술의 물적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 나갈 구체적인 삶과 삶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가치관의 문제, 즉 사람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문화의 창달과 교육발전 이념을 구상하여 전통과 변화의 조화속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과제. ③ 범세계적인 관심인 동시에 양적 충족에서 질적 만족으로 가는 도정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당면하게 될 환경문제 그리고 성장과 제약조건이 될 에너지, 자원, 인구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과제. ④ 미래 정보화사회와 첨단과학 기술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첨단과학의 발전과 이에 따른 정보변화를 예측하고 과학기술의 심층적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국가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과학기술발전 방안의 모색. ⑤ 산업화와 사회구조의 분화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래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오늘의 세계는 참다운 의미에서 한울타리로 가까운 지구촌이 되었으며, 한 나라의 문제는 곧바로 전세계의 문제로 연결된다. 어떤 區域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등의 문제이건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나라에 충격파를 미치고 그것은 한 나라의 생존자체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문제가 되었다.

이제 인류는 지구호라는 운명공동체의 한배를 타고, 희망과 불안을 안고 불확실성의 해도를 읽으며 미지의 내일을 향해 숨기뿐 항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와 깊히 연계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관심사는 우리 자신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긴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을 것이고 문제들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 풍